

음악가들의 아르바이트

음악가라고 하여 무조건 세속과 담판 쌓았던 것은 아니었다. '자유'와 '예술'을 외쳤지만 불안한 '현실'은 생활고로 쪼들렸다. 그래서 음악가들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예술 세계가 언젠가는 꽃피울 거라는 믿음만은 꺾지 않았다.

▶ 비평부터 와인 판매까지

작곡이나 연주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업을 선택한 이도 많았다. 이들은 주로 악기나 악보 출판·판매·중개업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았다. '환상 교향곡'으로 유명한 베를리오즈(1803~1869)는 작곡료로 충당되지 않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비평을 했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비평 활동을 통해 비평이 지닌 힘에 눈뜨게 되었다. '유럽 평론'이라는 잡지에 기고했던 그는 비평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의 기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런 무기를 내 손에 넣는다고 생각하니 그리 나쁘지는 않다. 여전히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일을 수락하기로 했다."

더 실리적인 부업을 택한 이는 베토벤의 할아버지이다. 그의 이름은 루트비히 판 베토벤(1712~1773),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1770~1827)과 똑같은 이름이다. 본의 궁정 악단에서 악장으로 일했던 그는 인망도 두터웠다고 한다. 하지만 급료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부업으로 와인 판매를 택했다. 이는 베토벤 가문에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베토벤의 할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수도원에서 숨을 거두었고,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 판 베토벤(1740~1792)도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하니, 경제적인 문과 함께 비극의 문도 열었던 것이다.

▶ 최고의 두 작곡가가 운영한 이삿집센터

작곡가 스티븐 라이히(1936~)와 필립 글래스(1937~)는 미니멀리즘이라는 기법으로 20세기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들이다. 미니멀리즘이란 쉽게 말해 선율과 박자를 무한 반복시키는 기법이다. 반복 기법이 긴요하게 쓰인 그들의 음악처럼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 인생을 반복하며 살았다. 그러면서도 펜과 오선지를 놓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작곡가는 기업이나 재단의 지원금을 수혜하거나, 학위를 취득하여 아카데미에 적을 걸어두어야만 안정적으로 작곡에 매진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히는 밀스 칼리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학계와 과감히 작별했다. 그리고 그는 택시를 운전하고 우체국에서 일하며 곡을 썼다. '당신이 원하는 곡'이 아닌 '자신이 쓰고 싶은 곡'을 쓰겠다는 것이었다.

글래스도 마찬가지였다. 음악의 명문 줄리어드 음악원 재학 시절에는 기증기를 몰고 배관공 일을 했다. 어느 날은 예술 평론가 로버트 휴즈(1938~2012)의 아파트에 접시닢이 기계를 설치해주기도 했다. 휴즈는 뉴욕의 저명한 작곡가가 왜 자기 집 부엌 바닥을 기어 다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라이히와 글래스는 잠깐 동안 뉴욕 첼시에 경량 이삿집센터를 세웠다. 그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건물의 좁은 계단으로 가구를 옮겨주었다고 한다. 두 대표이자 일꾼이 20세기 음악사를 바꾸고 있는 천재 작곡가라니! 글래스의 이러한 이중생활은 오페라 '사티아그라하'를 위촉받던 1978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완벽한 성공을 거둔 뒤에는 위스키 광고 모델은 물론이고, 시계 광고를 위한 음악을 쓰는 등 대중스타 못지않은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작곡가로 대성한 뒤에도 자력으로 생활하는 글래스의 이러한 이미지는 청중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음악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스타덤에 오르기 전의 무명 시절, 그들도 역시 가난한 고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

▶ 한국 음악가들의 아르바이트

바이올린 교육의 대모(大母)인 김남윤(1949~),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어릴 적부터 교육자로서의 '끼'가 충만했다. 서울예고 재학 중에도 아르바이트로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고, 줄리어드 음악원 재학 중에는 베이비시터와 브로드웨이 뮤지컬 반주자로 일했다. 그러면서도 연습에 주력하여 1974년에 세계적인 콩쿠르인 스위스 티보바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의 누나인 작곡가 진은숙(1961~)은 2007년에 독일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에 그녀가 작곡한 오페라 '이상의 나라의 엘리스'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작곡가의 반열에 올랐다. 진은숙은 목사이자 음악애호가였던 아버지로부터 네 살 때부터 기초적인 음악 이론과 악보 읽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보면 부유한 집의 딸 같다. 하지만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그녀는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틈틈이 결혼식 반주 아르바이트를 하여 50원씩 받았다. 밥 한 끼가 약 20원 할 때였으니 당시로서는 꽤 쓸쓸한 벌이였던 것이다.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잘 알려진 박칼린(1967~)도 미국에 공연차 들린 고 박동진 명창의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악과 만나게 되었고, 후에 한국적 색채가 녹아든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 등에서 음악감독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학교중'의 작곡가 김메리(1904~2005)는 이화학당(이화여자대학교 전신)을 졸업할 때까지 기상, 식사, 취침, 기도시간을 알려주는 종치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이때의 경험이 1948년에 작곡한 '학교중'의 밑거름이 되었다.

조선일보의 '이규태 코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규태(1933~2006)는 오히려 음악을 아르바이트로 삼았다. 1950년대에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종로1가에 위치한 음악다방 르네상스에서 디스크자키로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 르네상스는 작곡가 백병동(1936~), 강석희(1934~)부터 문학평론가 이어령(1934~) 등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의 집합지였다. 그들이 회고하는 젊은 시절 속의 이규태는 '디스크자키 이규태'로 기억된다. 또, 그런 음악적 감수성이 뒷받침되었기에 이규태가 왕성한 문기(文氣)를 뽐내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많은 이들이 음악가는 속세와 담을 쌓고 예술에만 매달리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풍족한 가문의 자제이기에 세상 물정에 초월하여 돈 안 되는 예술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음악가에게나 가난했던 젊은 날의 시절이 있다. 어쩌면 그 때 그 시절의 아르바이트는 자신의 예술이 언젠가는 꽃피울 것이라는 믿음에서 택한 임시방편이 아니었을까. '이것으로 버티자, 나는 언젠가 높이 날 것이다.' 라며.

화복무문 禍福無門, 유인소소 惟人所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에 선박 운항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는 그런 염원을 담아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 2015년 9월에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일어났다. 탑승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가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구명조끼라도 입었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다. 나아가 "안전수칙을 지켰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불행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하여 반복되고 있다. 이를 두고 "행운은 겹쳐서 오지 않지만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 (福無雙至, 禍不單行) 왜 바라는 행복은 하나라도 찾아 올까말까 하지만 불행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닥쳐오는 것일까? 『좌씨전』 양공 23년을 보면 "행운과 불행이 찾아오는 특별한 문(원인)이 없다. 오로지 사람이 초래할 뿐이다."라고 한다 (화복무문禍福無門, 유인소소惟人所召). 우리는 불행이 거꾸 생기면 혹시 신적 존재가 노여워서 그런 일이 생긴다거나 운수가 좋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를 받을지 모른다. 하지만 행운과 불행은 모두 사람이 한 일의 결과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인과응보이다.

차, 배, 비행기 등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아무리 세세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돌고래호 사고도 액운이 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부터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언론은 공동체에 큰 재앙이 한번이라도 생겼다면 공동체에서 그 원인을 찾아 감시하는 노력을 기울려 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난 뒤에 지면(紙面)에서 질타와 한탄을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지면(地面)을 살살이 훑으며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